

“대장동 개발이익 최대한 환수했다”

이재명, 국토위 경기도 국감 답변

“토건비리·부정부패 꼭 척결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500억 클럽’ 됐을 것”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발에서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 가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또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며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 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보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한다. 이 지사의 ‘500억 클럽’ 언급은 국민

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개발 이익 환수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의미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파크뷰 특혜분양, 분당 정자동 사업을 보면서 반대운동 하다가 구속도 됐지만,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인허가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도정의 건설 분야 성과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 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감 위원들에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 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발사 준비 완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0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세워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우주로

오후 4시 발사 ... 성공률 30%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하늘을 가른다. <관련 기사 2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20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를 제2발사대에 세우는 작업을 마치고 발사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 누리호는 1.5 t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km 저궤도에 쏘아올리는 로켓이다. 총 길이 47.2m, 직경 3.5m이며 중량은 200 t이다. 로켓 3단, 시험위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누리호는 20일 오전 7시 20분께 나로우주센터 조립장에서 나왔다.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린 누리호는 구불구불한 산길 1.8km를 시속 1.5km 속도로 조심스럽게 이동, 오전 8시 45분에 발사체중

합조립동에 도착했다.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각은 21일 오후 4시경이다. 발사 시각은 기상 상황이나 발사체 상태,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 일정이 미뤄질 경우 발사예비일(22~28일) 내에 발사한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예정 시각 1시간 30분 전에 확정된다.

발사된 누리호는 1.5 t급 터미(시험) 위성을 싣고 고도 700km 지점까지 날아간다. 1, 2, 3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에도 정확한 속도를 낼 수 있는지가 성공 여부를 가른다. 1단이 분리될 때 초속 1.8km, 2단 분리 시 초속 4.3km에 도달해야 한다. 터미 위성과 3단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초속 7.5km까지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발사 후 16분 전후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률을 30% 남짓으로 예측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석열, 전두환 옹호 망언에 호남 정치권·민심 ‘부글부글’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하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을 옹호한 발언을 놓고 호남 정치권과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25명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발

언을 ‘망언’이라고 직격하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후보는 호남 편협과 국민을 우롱하는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라며 “잘못된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은 윤 후보가 군부 독재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천박한 역사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윤 후보의 망언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

을 내고 “5·18 원흉 전두환을 찬양하고 오월영령을 욕보인 윤 전 총장은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1년 전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월영령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협조하겠다 약속했던 진정성을 이제는 버리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밖에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윤 전 총장의 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천박한 인식과 전두환을 옹호하는 역사관을 가진 윤석열은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윤 후보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형 사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민주·인권·평화의
 김대중 정신으로 인류와 지구위기 극복

2021 김대중평화회의의 KIM DAE JUNG PEACE FORUM 2021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향하여
 Envisioning the World Beyond COVID-19
 A New Basis for World Peace

- 문화행사: 목포 하당 평화광장 / 10월 26일 (화)
- 학술회의: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 10월 27~28일 (수~목)

| 국내외 주요연사



| 문화행사

